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목회자와 영적 지도력’

농어촌 목회자 초청세미나 열어

6월 11 - 13일, 2박 3일간 충현기도원에서
지교회 및 지원 교회 목회자 및 사모 대상으로

우리 교회의 지교회 및 지원 교회 목회자 및 사모를 초청해 열리는 농어촌 목회자 초청세미나가 6월 11일(화)부터 13일(목)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있게 된다.

우리 교회는 초창기부터 농어촌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개척, 교회 지원, 농어촌전도대 파송 등으로 농어촌교회를 도와왔다. 1972년에는 농어촌 교사(평신도)들을 초청하여 훈련시켜오던 중 농어촌 목회자 초청훈련을 결해 오기도 했다. 그동안 중단됐던 것을 지난 해부터 농어촌교회의 현안 문제에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방향에서 지원해 주려는 의도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금년도 농어촌 목회자 초청세미나는 세계화 시대에 즈음하여 전국 농어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효과적인 사역과 교회 부



세례식 및 성찬식

금년 들어 세번째 시행하는 세례식이 6월 14일(금)에 실시된다.

오는 6월 14일(금) 세례식을 앞두고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및 개종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까지 교구 담당교역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사람은 오는 6월 13일(목) 오후 7시에 교육관 307호에서 예비교육 및 문답을 받고 여기에서 통과된 사람은 6월 14일 오후 7시 갈릴리홀에서 세례식에 참석하여야 한다.

한편 금년 들어 두번째 실시하는 성찬식이 오는 6월 16일 주일 I, II, III, IV 부예배 시간에 거행된다.

분실물

잃어버리신 분, 습득하신 분

교회내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예배위원회실(본당 로비 왼쪽에 위치)에 와서 찾아가십시오. 아울러 물건을 습득하신 분도 예배위원회실로 보내주시면 주인을 찾아 돌려드리겠습니다.

직원모집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함께 일할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 자 격
세례교인으로서
여사무직은 여성 졸업자로 23세 미만,
경비직은 50세 전후로 신앙이 돈독한 사람
- 대 상
여사무직 0명, 경비직 0명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 포함)
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서(채용 후 제출도 됨)
- 서류제출 및 문의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교환 402)

시 간	6. 11(화)	6. 12(수)	6. 13(목)
05:00 ~ 05:20	등록 및 접수 (충현교회에서, 이틀 마친 후 배다니홀로)	기상 및 세면	
05:30 ~ 06:30		새벽기도회 인도: 장병기 목사	새벽기도회 인도: 안경기 목사
06:30 ~ 08:00		아침 식사	
08:00 ~ 09:00		자유 시간	
09:00 ~ 10:30		제 2 강의 사회: 이약술 목사 기도: 참석자중에 설교: 양경운 목사	종강예배 사회: 송기홍 장로 기도: 김경철 장로 설교: 성봉환 목사
10:40 ~ 12:10	개강예배(11:00) 사회: 강은원 장로 기도: 김재관 장로 설교: 이종대 목사	자유 토론의 시간	친교의 시간
12:30 ~ 14:00	점심 식사		
14:00 ~ 15:00	오리엔테이션	레크리에이션	
15:00 ~ 16:30	기도원으로 출발 숙소 배정	제 3 강의 사회: 유순근 목사 기도: 참석자 중에 강사: 김찬곤 목사	
16:40 ~ 18:10	제 1 강의 사회: 차정삼 목사 기도: 참석자 중에 강사: 양경운 목사	제 4 강의 사회: 이종재 목사 기도: 참석자 중에 강사: 이종성 목사	
18:10 ~ 19:30	자녀 식사		
19:30 ~ 21:00	부흥회 사회: 윤종일 목사 기도: 참석자 중에 강사: 김영배 목사		
21:00 ~ 22:00	기도의 시간		
22:00 ~ 05:00	취침		

흥에 기여하고, 세계화의 물결 속에 교회가 농어촌 지역의 동대 역할을 감당하고 새로운 비전과 확신을 심어주는 중심적인 사명을 이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와 영적 지도력’이란 주제를 정하고 강의와 훈련, 토론회, 기도회 등을 통해 세계화 시대를 영도해 나가는 중추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데 뜻이 있는 것이다.

숙식 및 교재대 등 모든 것이 무료로 농어촌교회 교역자로 지교회 및 지원 교회 목회자와 목회자 세미나 수강자 중 농어촌을 살리려는 의욕있는 목회자, 농어촌 복음화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가진 목회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저녁 부흥회, 오전 특강, 오후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하며 레크리에이션과 특별 휴식 시간 등을 배정해 영육간에 휴식과 재충전이 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접수는 충현교회 전도위원회(☎ 552-8200, 교 355, 337)로 하면 된다.

강사는 외부 및 내부 강사로 외부 강사는 양경운 목사, 김영배 목사, 장병기 목사, 안경기 목사이며 내부 강사는 김찬곤 목사, 이종성 목사, 성봉환 목사, 이종대 목사이다. 각 담당자 및 시간은 왼쪽 표와 같다.

(사진은 지난해 농어촌 목회자 초청세미나의 모습이다)

①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넷째날 (4월 4일) 낮 공부 ①

축복과 복

(창 48:1-7)

“이 일 후에 흑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흑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 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하에서 함께 하리라 ...”(창 48:1-7)

지난 고난주간 동안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를 열어 기간 중 매일 새벽, 낮, 저녁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특별부흥사경회를 가졌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순종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오신 감사 목사님의 자기 체험과 간증이 담긴 메시지는 온 교인들에게 큰 감명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제 부흥사경회를 마치면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고, 또한 그때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교우들과도 이 은혜를 함께 하고 싶어 <주간총헌>에서는 부흥사경회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풀어 전하기로 하였다. 연재 순서는 부흥사경회 일정을 따라서 하게 된다.(편집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찾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 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미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한번 받아 합시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지니 네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은 ‘축복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축복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십시오. 우리 모두 축복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누리기를 원 하고 복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중에 그 들은 그런 말씀은 그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제 사자들은 그 말씀이고 신약에는 목사님 들은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직자, 다른 말로 고치면 성직자 성 직자들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입 니다. 성직자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영력이 충만하고 무슨 깨달음이 있어 가지고 특별한 진리를 전해는 무슨 그 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 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 렸어요. 성직자는 내 이름으로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나는 나는 누구고 하면 하나님 이시지. 나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나는 내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요. 일핏 생각하면 그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신약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런 말 씀이 있 어요. 받 아 하세 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어

다” 예배 시간 중 언제 그런 축복의 기도 말씀을 합니까? 마칠 때 그런 기도를 하지요.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의 항상 서문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받아 하세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목사에게는 성직에 걸맞는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제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목사가 돼 가지고 한 10년 동안 축복기도를 안했어요. 왜 안했는가 하면 내 손이 깨끗치 않는데 내 손이 거룩치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 치면 항상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그렇게 마쳤어요. 성도들이 “왜 축복기도 안하셔요? 축복기도를 해 주셔야 되지요.” “예, 하나님이 내게 축복기도 하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면 그때 가시 하겠습니까.” 그래 좀 기다리는데 “지 치지만 그래 봅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나서 얼마 후 어느 교회에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부흥



김덕신 목사
(대구 동부교회 담임)

— 연재 순서 —

- 첫째날 (4월1일)
 - 저녁 집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13:36 ~ 14:6)
- 둘째날 (4월2일)
 - 새벽기도회 신령한 생수(출 17:1 - 7)
 - 낮 공부 은혜와 은사(고전 12:4 - 11)
 - 저녁 집회 다윗의 신앙간증(시 23:1 - 6)
- 셋째날 (4월3일)
 - 새벽기도회 다윗의 신앙고백(시 51:1 - 15)
 - 낮 공부 믿음의 성전과 봉사의 성전(창 28:10 - 22)
 - 저녁 집회 징조를 구하라(사 7:10 - 17)
- 넷째날 (4월4일)
 - 새벽기도회 구름기둥 불기둥(출 13:20 - 22)
 - 낮 공부 축복과 복(창 48:1 - 7)
 - 저녁 집회 말세의 하늘의 세 가지 음성(계 17:15 ~ 18:5)
- 다섯째날 (4월5일)
 - 새벽기도회 내 사랑이(아 6:4 - 9)

회했습니다. 부흥회 시 간에 제가 축복기도를 안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을 비롯 많은 분들이 “목사님 왜 축복기도를 안하셔요?” 그래요. “예, 그렇 습니다.” 자꾸 물으시길래 “내 손이 거룩치 못한데 내가 이제 거연(居然)히 주의 성도를 향해 가지고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 겠습니까? 그래서 안합니 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 선생님입니다. 다음은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께 한번 묻 겠습니 다. 목사님 손이 축복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 거룩,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 잘 몰라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안됩니다. 결단코 죽을 때까지. 목사님이 거룩, 거룩, 거룩 한 손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손이 깨끗치 않다고 손을 안 들고 기도를 안하면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홀연히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사람은 암만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 성결할 수 없는데 내가 내 손이 깨끗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그 후로 믿음으로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와 가지고 안 수기도 해 달라고 하면 잘 안해 줍니다. 안수 잘하는 은사가 있는 분에게 가서 받으라 하고 제가 안수 잘 안합니다.

어쨌건 성경에 축복기도라는 것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했고, 또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떠났습니다. 결 단코 결단코 자기 이름으로 한 것이 아 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 을 했습니다.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은 아멘, 아멘 하고 축복을 받게 되고

복을 누린 줄을 믿습니다. 그런 중요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루터 선생은 “축복을 말하거든 저주도 말해라” 그랬습니다. 축복을 말하거든 무엇을 말해요? 저주를 말하랍니 다. 왜 저주 말하라고 하셨느냐? 축복에 대한 긴장감을 갖도록 늘 깨어서 살고, 저주 안 받는 생활하도록 늘 경성하고 깨어 있는 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주도 말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실 제로 또 저주가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입니다. 좀 길지 요. 길어도 좀 읽어봅시다. 설교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됩니다. 새 거 가면서 묵상해 가면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 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너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요셉 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 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당은 큰 소리 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 르기를 창세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 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 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 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 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 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 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 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 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 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 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 곧 그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구합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 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 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 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 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 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8장 “네가 네 하나님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넷째날(4월 4일) 낮 공부 ○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다같이 받아 합시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저주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축복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는 다 저주받을 사람들이래요. 이런 비슷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으며" 그렇게 다 죄를 지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도 중심으로 회개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 안하고 자꾸 계속해서 저주받을 짓을 하면 저주받아요. 저주가 임해요.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는 특별히 그들은 제사장들은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그러면 나는 저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회개하는 심령 그 말은 뜻을 새겨 들으라 그 말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없지만 그러나 중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 안하면 안하므로 인해서 저주받아 멸망 받고 지옥까지 가는 일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축복과 복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중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중에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늘 입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만 하나님보고 "축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어학상으로 볼 때에 꼭 구별한다면 하나님보고 축복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인 됩니까? 하나님보고 복을 달라고 하지 않고 축복하소서 하면 되요, 안 되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복을 빌어 준다'는 말이에요. 지존 무상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어른인데 하나님이 누구보고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믿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일 높으신 데 제일 높은 하나님보고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고는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복을 주소서" 그러면 됩니다. 받아 하세요. "아버지여 복을 주소서"

그럴 때에 "애 니 복 받을 자격 있나?" 이래 나오는 것입니다. 켜어 박혀 버립니다. 양심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여 복을 주소서." "애 니 복 받을 자격 있나?" 기도가 그만 멈춰버립니다.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이고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발 물러나 앉아 가지고 예수님 보고 "주여 축복하소서" 그 기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 하세요. "주여 축복하소서" 로마서 8장 34절을 봅시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 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받아 하세요. "예수님은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

인정을 합니다. 믿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니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면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로 김덕신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다같이,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맞습니까? 틀리지요. 받아 하세요. "아버지여 복을 주소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보고 복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여 복을 주소서 하니까 양심적으로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으니까 다음에는 한 발 물러나 가지고 예수님보고 "주여 축복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이름으로" 받아 하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누구래요? 예수님이십니다. 받아 하세요. "내가 저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철저히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피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계명으로 성직자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받아 하세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지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성직자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줬어요. 저주도 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목사님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받아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구약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와 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나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받아 하세요. "하나님은 지키시고 예수님은 은혜 주시고 성령은 평강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그 축복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이름으로 목사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신약 시대에는 목사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학적 용어로 말하면 성문율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계명으로 정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불문율도 있어요. 법으로 정하지 않은,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지 않은, 성문율이 아니고 불문율로 된 것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집의 이웃 사람 예화하나 들리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설교 하라고 저를 그런 일을 보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고 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제 아버지는 일제시대에 모 지역에서 3.1 독립운동 당시에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다가 체포가 되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으레 못하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그 딸린 자식들이 죽자 사자 고생을 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떠나기 전에 "내가 죽고 나면 반드시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 속에 기억지심이 조금 생겨 가지고 "왜 살아 있을 때 복 못 받고 죽어야 복을 받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갔지만 그 말을 어른보고 할 수는 없고 그래 "아버지여 손가락 몽둥이도 움은 것 하나 없는데 뭐가지고 복 받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야 이 자식이 내가 그렇게 안하게 생겼나? 나라 뺏겼는데 무엇을 할 수가 있나? 놀고 먹을 수가 있나" 그래서 대구에서 십 여년 살면서 앞산에 적어도 50번 이상 올라가 가지고 밤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으니 반드시 복을 받을 줄을 믿는다. 기도하자." 그러고는 가셨어요. 기도하고 돌아가버린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는 축복기도를 하고, 축복을 전해 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웃에 있는 제 이름하

우리가 늘 입에 익숙해져서 하나님보고 "축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어학상으로 볼 때에 꼭 구별한다면 하나님보고 축복해 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복을 빌어 준다'는 말이에요. 지존 무상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어른인데 하나님이 누구보고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저 "복을 주소서" 그러면 됩니다.

고, "주여 축복하소서" 이룬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 김덕신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보고 "주님여 축복하소서" 하면 "그래 알았다" 그러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를 하신대요. 기도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김목사가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 김덕신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고 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결단코 예수 없는 축복은 없어요. 예수 없는 복은 없어요. 다같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님 보고 "주여 축복하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김덕신이 복 받을 자격 있나?" 라고 물으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를 위하여 그가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미리로 짓는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김덕신이가

것을 믿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복을 물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 주시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축복의 길을 건도록 영생의 길을 건도록 하시고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도 넘치도록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둘째로, 우주간에 근세와 내세의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세 내세에 있어서 축복을 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넷째날 (4월 4일) 낮 공부 ●

고 제 성하고 같은 사람이 살았는데 그 아버지는 건어물 장사를 해 가지고 서문시장에서 건어물 장사해서 돈을 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른은 은행을 안 믿어 돈을 항상 집에다가 두는데 금고를 만들어 가지고 쇠 금고를 해서 거기에 돈을 차곡차곡 그렇게 저축을 하시는데 아 이놈의 자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어디 가서 구했는지 쇠 뚫는 기계를 구해 가지고 금고를 드르륵 뚫어 가지고 그래 돈을 빼내 간데요. 돈을 빼내가 가지고 열흘씩 보름씩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니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합니다. 저주를 한 빈만 하면 내가 잊어버렸을텐데 계속해서 해대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에이 빌어 먹을 놈의 새끼들, 에이 빌어 먹을 놈의 새끼들 에이 빌어 먹을 놈의 새끼들" 꼭 삼창을 합니다. "깡통도 아깝다. 깡통도 아깝다 에이 이놈의 새끼들 생긴 안 떨어지는 가죽부대에 얻어먹어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이고? 깡통은 아깝고 가죽부대는 안 아까운가? 그런데 가끔 가다가 당신이 주석을 붙이시는데, '생전 안 떨어지는 가죽부대'는 '배'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저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지도 재산 제1항목이 깡통입니다. 그 깡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어디 얻어 먹는 것, 자기 맘대로 하나요? 얻어 먹는 것, 굶은 음식도 있고 물기 있는 음식도 있고 뜨끈한 것도 있고 차가운 것도 있는데 그릇에 받아야 되니 손 가지고 어떻게 받습니까? 재산 제1항목이라 그 깡통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한테 저주하기를 그 깡통도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극빈입니다.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깡통도 아깝다 생전 안 떨어지는 가죽부대에 얻어먹어라" 가죽부대가 뭐고? "생전 안 떨어지는 배"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에 욕을 해도 그런 지독스런 욕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자식보고 욕 많이 해요. 절대로 욕하지 마소. 저주하지 말아요. '망할 놈의새끼, 지랄하는 새끼, 주리를 틀놈' 그거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주를 고쳐야 돼요. "이 부정한 입술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불로 지질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 하세요. "주여 성령의 불로 입을 지저주사 깨끗케 하옵소서" 축복해도 시원찮은데 자꾸 저주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각각 그 어른들이 앞서고 뒤서고 세상을 떠났어요.

세원은 홀리시 저는 축복을 받아서 목사가 되어 이노 교회에 시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빈은 사택에 있으니까 거지가 한 명 왔습니다. 거지가 왔는데 "형님"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 내가 왜 거지 동생을 뒀던고 싶어 짹짹 놀라 가지고 "아니 당신이 누구데 형님 하나?" 하니깐 "형님, 난 몰라요?" 아유, 그 아들이라. 아버지가 저주하던 그 아들이라요. "니 와 이러나? 니 그 많은 살림 다 어떻게 하고 이러나?"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하고 거지가 돼 놓으니 씻지도 않았어

요. "야 이 사람아 우리 교회에 사찰이 없네. 사찰이나 목사나 똑같네." 혹시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가 하고 오해할까 싶어서 목사나 사찰은 다 똑같다고 해놓고 "목사는 신학을 공부해서 설교를 하지만 나는 공부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교회 사찰 좀 해 다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노켜너가 많다. 그 중에 하나 골라 가지고 장가도 들어라. 이래 돌아다니면 안된다." "싫다." 그 후의 얘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야 부모말 씨 있다, 부모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주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말 무섭습니다. 말 독합니다. 저주는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성도는 절대로 남보고 저주 안합니다. 받아 하세요. "주여 내 입술을 정결케 하사 축복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 있을진저 부정한 내 입술이여"

은지라 가나안의 아버 함이 그 아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의 하체에 덮였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썸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제가 설명합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 농사에 포도를 포도주를 해 가지고 싹틔 마셨습니다. 취했어요. 술 먹고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을 자꾸 두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집에 와서 살림을 자꾸 부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세상 저 세상을 모르고 깊은 잠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

짓지도 안하고 죄의 연루된 사람도 아닌데 함을 보고 손자 가나안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터럭도 안 건드리는 것입니다. 안 건드리고 손자만 저주하는 것입니다. 히브리말로 가나안은 짐둥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저주를 받는나 가나안 손자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저주는 손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당대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썸의 장막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래 나가는 것입니다. "썸의 장막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야벳이여 너는 땅에서 창대할지니라." 그러나 가나안은 썸의 장막에 와서 머물며 종이 되겠다 딱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모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저주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죄값이요.

그러면 왜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하고 손자에게 저주합니까? 저주는 손자 대에 가서 받습니다. 저주는 부모 대에 당사자가 아니고 한 대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래요? 참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도 고생을 직사하게 하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고. 이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자 대에 가서 저주받게 하는 것, 그 저주받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축복은 당대에 시작하고 저주는 한 대 넘어갑니다. 저주는 손자대부터 시작합니다. 왜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하고 손자에게 저주를 합니까? 저주는 손자 대에 가서 받습니다. 저주는 부모 대에 당사자가 아니고 한 대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즉 그 저주받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가가 탄식을 하고 부르짖을 때에 슬라피와서 그 입을 지짐질을 해주고 "네 죄가 제거 되었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결케 해 주시는 우리 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축복은 원칙상 성직자가 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나는 내 능력으로 여기 능력이라는 말이 없어요. 없지만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 이제 설명을 붙이기를 하나님은 자기 능력으로 받아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능력으로 복을 주리라" 믿습니까? 그런 의미의 말씀을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교회의 성직자가 드리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셋째로, 성경에 보니까 축복은 당대에 시작하고 저주는 한 대 넘어갑니다. 저주는 손자대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9장을 찾아봅시다. 다 찾으세요. 창세기 9장에 있습니다. 제가 20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

고, 어떤 사람은 자꾸 옷을 벗어버린답나다. 노아는 옷 벗는 취중을 했는 모양입니다. 벗는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옷을 하나씩 둘씩 벗이 가지고 그만 벌거숭이로 누워 있었는데 그때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 형과 동생에게 가 가지고 흉을 봤는기라에. "아이고 의인이라고 하면서 벌 것도 없더라" 형하고 동생보고 말을 했더니 형하고 동생은 훌리불을 하나 들고 뒷걸음질을 쳐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 주고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 칼빈 선생이 아주 절묘한 해석을 했어요. 노아는 아버지인 동시에 선지자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자식 좀 봐줄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선지자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좋은 나쁜 아하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나 이 아들들이 한 일에 대해서 한 놈은 저주를 받았고 두 놈들은 복을 받았구나, 성경에는 그리 안해 놔지만 제가 조금 윤색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셈과 야벳은 오른쪽에 와서 서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함보고 너는 왼쪽에 서라 그런데 네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손자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무 까닭도 없는 죄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맘으로
주 앞에 옵니다

1절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맘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를 하나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해 가니까 사택이 없어요. 사택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이사를 다니는데 아이고 그런데 이사를 다니다 보니 계단식 집이 있잖아요. 부산 같은데 가면 산에 집이 첩첩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밑의 집으로 간 겁니다. 위의 집, 밑의 집, 위의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넷째날(4월 4일) 낮 공부 ○

집은 담배락이 죽 한 10미터 높이의 담배락이 있고 우리는 그 밑에 지내는데 이사를 가 놓고 보니까 부엌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밥을 할 때면 항상 바깥에 나와 가지고 남의 담배다가 술을 걸어 놓고 여름에는 밥을 하는데 한번은 밥을 해 가지고 이제 밥을 뜨려고 솥뚜껑을 열어 놓고 집사람이 기도를 했는 모양입니다. 나는 뒷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위의 집에 사는 짓곳은 이웃 아이가 밥술에다 침을 뱉어 버린 것입니다. 집사람이 "아이고 우야꼬 밥을 우에 먹나? 야야 침 뱉을 데가 그렇게 없더냐? 그렇게 없어 가지고 남의 술에다 침을 뱉으면 밥을 어떻게 먹나?" 그러니 위에서 놀리잖아요. 애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제가 하는 말이 "침 묻은 거 떼어 내라. 그 밥은 퍼서 나를 주고 먹읍시다." 그러니 밥을 버릴 수가 있나. 그래 인자 하는데 또 얼마 돼 가지고 또 이번에는 밥을 다 푸고 숟가락을 부어 놔는데 집사람이 모르고 뚜껑을 열어 놔던 겁니다. 그런데 이놈이 위에서 또 침을 뱉어 가지고 그만 숟가락에다 부어 놓으니 그 숟가락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 때는 목사가 그만 본색이 드러나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에이 이놈의 세끼하고 막 쫓아올라 가는 겁니다. 집에 그 아이의 엄마 아빠 만나려고 가다가 다리가 휘청거려요.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죄값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계단식 집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위에 살고 밑에 집이 있었습니다. 밑의 집에는 소경이 살고 있었어요. 세상에 저처럼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소변보러 어디로 가는가 하면 소경 집 그 지붕 위에도 자꾸 오줌을 싸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경이 나와 가지고 작대기를 휘두르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데 그래 가지고 놀려 대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그런 일을 당하니 너무나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부산에 있을 때 왜 소경의 집 지붕에다가 오줌을 싼노? 오줌 싼 데가 그렇게 없더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지나갔다고 하면 안 되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콩 심으면 콩을 거둬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어요. 율법적으로 할 하면 심은 대로 거두면 다 저주받아요. 그러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축복으로 바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너 왜 그렇게 오줌 누 데가 없이 가지고 소경의 집에다 그렇게 해 가지고 소경이 작대기 들고 나와서 고래고래 고향을 지르는데 저주받을 짓을 했잖아." 큰 일 적은 일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늘 회개해야 됩니다. 늘 죄 짓습니다. 늘 회개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절대로 지옥 가는 법은 없지만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징계는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다같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될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잘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

요. 그러나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주님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강건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더, "네 영혼이 잘될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믿으세요.

넷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무슨 말씀인고하면 축복을 하는 제사장 목사지만 또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불문을이지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일 후에 호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호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축복은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성직자가 하는 것이지만 성직자가 다 은혜를 받았겠지요. 그러나 확실히 은혜를 체험을 한 사람하고 이론적으로 배워서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분명히 은혜의 체험을 하고 신앙의 경험을 가진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받아 하세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저들에게 축복 할지니 그러면 나는 저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3절을 우리 나 같이 받아 합시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가 어디입니까? 벨엘이지요. 어제 벨엘에서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복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다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무엇을 허락하고" 무엇을 허락하고? 복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요.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요. 메마른 막대기로 하나님이 쓰지 아니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든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해 가지고 그 가문에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굉장한 얘기예요. 나이 많고 적은 것이 상관없이 없어요.

대구에 가면 큰 백화점이 있어요. 그 백화점 주인의 따님이 제가 있는 교회로 나왔어요. 그래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그 어머니가 핏박을

많이 했어요. 고모가 보살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인이 되면 교회 간다고 머리를 뜯고 두들겨팼어요. 애는 나이가 어린 초등 학생인 3학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이 들어갔어요. 아무리 두들겨팼어도 안 되요. 그런 핏박 속에서도 신앙 생활을 잘했는데 그만 시집을 가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돈이고 뭐고 귀찮은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사는데 부잣집 마나님, 그 어머니가 자꾸 손이 마르고 다리가 마르고 자꾸 마르는 병에 걸렸어요. 그 마르는 중세가 심장으로가 버리면 죽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부자 병이라고 하는데 돈이 많으니까 일본에 유명하다는 내과 의사한테 가서 한달씩 치료를 받고 미국 가서 치료받고 영국도 가고 오 대양 육대주가 좁다는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써도 안 낫는데 미국 갔으니까 아무래도 딸이 있으니까 딸 집에 갔습니다. 딸이, "엄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이놈의 제집애야, 너 고

문에 부흥회 못합니다. 다른 분께 청해 보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목사님은 기어이 나를 챙겨 가겠다는 것입니다. 기어이 데리고 가고 싶거든 낮 공부 새벽 공부를 하지 말고 저녁만 하자, 시간이 사흘만 하자고 했더니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사흘만 하는데 그 부인이 나왔어요. 참 회장 부인이 나와 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목사님이 와 가지고 기도 좀 해 주라 하는데 "우야노 나 잘 안하는데" "아이고 그러지 말고 꼭 한번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를 해 줬어요. 어떻게 됐는지 이튿날 저녁에 또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했는데 한번 더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해주고 사흘 마치는 날 또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 번을 해 줬습니다. 제가 안수 기도했다고 나왔겠습니까만 단 대도 가서 안수를 받았겠지요. 어쨌건간에 그 분이 예수를 믿고 1년만에 완전히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낫고 나니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됐나 하면 불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불교가 무너지 버리고 그 가문에 예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른도 바깥 어른도 교회에 뭐 있데이 이래가지고 회장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 후 주일에는 백화점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시장님이 대구에는 위락 시설이 없어서 잘 데가 없는데 문 닫아 버리면 시민들이 잘 데 없어서 큰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 좀 열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정 사정하는 바람에 할수 없이 주일에 문을 열고 그 안에다가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직원들이 가서 신앙 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축복은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성직자가 하는 것이지만 성직자가 다 은혜를 받았겠지요. 그러나 확실히 은혜를 체험을 한 사람하고 이론적으로 배워서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분명히 은혜의 체험을 하고 신앙의 경험을 가진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받아 하세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저들에게 축복 할지니 그러면 나는 저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맏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모 절에 가서 백일 치성으로 기도해도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낫겠냐? "부처는 못 고쳐도 예수님은 고치요. 예수님은 앓은병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보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능력이 계시는데 예수 믿으면 병이 나아요." 하니까 물어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식으로 "그래 지금 나가서 되겠냐." "상관할 것 없어요.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면 병이 나아요." 우리 병자들을 전도할 때 병들어 가지고 누워 있든지 '낫지 않습니다.' 이러지 말아요. '낫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안 나아서 죽어 버려도, 안 나서서 죽어도 낫는다고 해야지 '믿으면 낫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낫습니다, 낫는다고 해 가지고 죽은 사람 많아요. 그래도 낫는다고 해야지 말을 고쳐야 돼요. 절대로 안된다고 말하면 안 되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믿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 이웃 교회로 나왔습니다. 나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교회 부흥회 하는 날입니다. 나보고 자꾸 부흥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내에 있는 교인들은 내 설교를 많이 들었기 대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넷째날 (4월 4일) 낮 공부

할렐루야!

다섯째는 축복 전달식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복은 어떻게 전해질까요? 축복 전달식 세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두번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세번째로는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전하시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흉포 입은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지옥 가 가지고 응답 없는 기도를 한참 드리다가 마지막에 끝이 가 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 주세요. 너희 형님들 너희 형님은 지옥 가 있고 나는 천당 갔다고 증언하면 우리 동생 다섯 사람들이 다 믿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지옥에 왔지만 동생들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세상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저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말 할지라도 결단코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말, 모세의 말,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자기 사상 말합니까? 여러분은 김덕신 목사 사상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까? 김덕신 목사의 철학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러면 오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왔는 것은 김덕신 목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것임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축복이 담겨 있어요. 사람이 주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말이라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목사님들 중에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대로 설교를 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사면 피해야 되지요. 남의 영혼을 망치는 사람들이지요. 목사님들 중에 설교하시면서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은 안되지요. 목사님들 중에 천당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이름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기독교 장로회 제가 이런 말을 하다가 그 분들이 나를 찾아와 공격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교회에 다니는 자에 한 분이 계시요. 그래 좋 아는 사이가 되어서 입의리운 사이가 되어서 "목사님,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이단입니까? 우리 목사님도 항상 성경 가지고 말씀을 전하던데요." 그래 제가하는 말이 "성경을 가지고 전하지만 성경대로 안 전하지 성경대로 안 전하지. 거기에 나간 지 얼마나 됐나?" "10년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묻는 말에 양심적으로 속이지 말고 확실히 답을 하라.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분명한 어조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하더냐?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 하더냐? 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말 하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정치적으로 죽은 것이라고는 않더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다고 말씀하더냐? 그리고 보리떡 다섯 덩이로 오천 명을 먹이시던 기적을 얘기하시더냐? 양심 속이지 마라" "아이고 그런 말 안합디다. 10년 지났는데 그런 말 안합디다." "그게 진리가 아니다 오래 다니면 안된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종교 다원화를 부르짖고 불교를 믿으나, 유교를 믿으나, 교회를 나오나 무엇을 믿든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같이, "내가 길이

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할지라도 듣지 않습니다. 받아 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는 줄을 믿으세요.

둘째로,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예배학을 참고하면 예배가 어느 시간에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 교회는 와 보니까 오르간을 연주하시네요. 오르간 연주를 하면서부터 '예배의 부름' 인지 잘 모르지만 예배를 마치는데 축도 하는데 축도 안 받고 가면 어찌 됩니까? 예? 축도가 예배 중의 중요한 순서입니다. 축도를 안 받고 가면 어떻게 하냐요. 그런 버릇을 고치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은 어떻게 전해질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둘째로,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셋째로, 주의 종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주의 종 대접하라는 것은 큰 교회 목사님에게 자동차 주고 기사 주고 생활비 많이 주고 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시골서 오는 목사님들요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 목사를 도와라 이겁니다. 목회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동참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니까? 믿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다른 데 길이 있는 것이 아니어요. 내가 길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어요. 다같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다른 예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시몬 바요나여 복이 있도다 네 믿음을 네 이름을 뱀식이라고 하고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가 권세가 못 이긴다. 지옥의 권세가 못 이긴다 천당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주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절대로 이단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이단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세상에 모세가 있고 세상에 선지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정로가 있는데, 진리를 바로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

다. 축복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이요. 인천 부평에 가면 미군 부대가 하나 있다고 하네요. 있습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그 부대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치리고 하면 미군들이 여나병 그 나무 위에 와서 선답니다. 한두 번 아니고 늘 그러길래 예배를 드리려면 처음부터 드리지 예배 끝에 와 가지고 예배드린다고 목사가 연짚게 생각을 해 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집사를 시켜 가지고 너희는 왜 예배를 그렇게 보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교육관에 와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축도는 자기들이 못하니 축복기도 받으려고 왔다면서 가히 히틀러 말고 용세하고 허락해 달라고 했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축복기도에 대한 에화들을 들었더니 얼마 지나 가지고 장로님 한 분이 와 가지고 "목사님요" "예" "축복 기도 좀 짧게 하소." "아이고 오만 것 다 간섭하네." "간섭이 아니고 나는 목사님 축복기도 할 때 숨을 안 쉽니다." 숨을 안 쉬는다는 것입니다.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그런데 숨을 안 쉬어요. "왜 숨을 안 쉬노?" "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축복이 충만하게 담기는데 마치기 전까지 숨쉬면 축복이 나가 버릴까봐 그러니까. 축복이 중간에

안 나가도록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 숨을 안 쉬는데 목사님이 길게 하면 숨통이 터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짧게 하셔야지 사람이 살지요." "보소. 축복은 믿음으로 받지 숨 안 쉬다고 받나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받지 숨 안 쉬다고 되는 것 아니냐다.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모양으로 산에 올라 가 가지고 많은 기도를 드려서 저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김창인 목사님만큼 큰 대 목회자는 못 되었어도 대구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첫째 둘째 가는 교회의 목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작대기만한 교회를 세워도 하나님이 교회를 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 우리 아버지께서 내 죽고 나면 너희들이 복 받는다고 하더니 아 그렇구나. 많은 살림을 주는 것보다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고 가는 것이 귀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축복을 마음껏 기도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절대로 자식들보고 지주하지 말아요. 저주의 용어 쓰지 말아요. 부정적인 말도 쓰지 말고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받아 하세요. "될 줄 믿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주린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의 종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주의 종 대접하라는 것은 큰 교회 목사님에게 자동차 주고 기사 주고 생활비 많이 주고 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시골서 오는 목사님들요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 목사를 도와라 이겁니다. 목회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동참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을 찾아보세요. 40, 41, 42절을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옛날에 엘리야를 대접 하던 사르밧 과부를 3년 동안 먹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축복 전달식 이 세 가지들을 잘 생각하시고 서로가 축복을 교환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1부 회원들의 효행심



이형주
(권사, 소망부 교사)

1996년 5월 12일 어버이주일에 충현교회 소망부에서는 방문하신 청년1부 회원들이 기타를 들고 와서 노래 춤으로 어른들을 위한 재롱잔치가 있었습니다. 떡과 음료수, 푸짐한 선물꾸러미까지 정말 작은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효심이 담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70여명의 교사들도 남교사들은 정장을 하시고 여교사들은 예쁜 한복을 입으시고 앞에 나가 인사하고 찬양으로 어른들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많은 기관이 있고 많은 부시들이 있지만 소망부에서 어른을 모시고 봉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주님께 특권을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망부에서 봉사하면 같이 늙어 가는 것 같아 다른 부시를 맡으라고 말하는데 같이 늙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명감으로 감사하면서 봉사한다면 오히려 더 보람되고 즐거운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부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긍정적

으로 생각하며 너무 열심히 내 부모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도 감사하고요. 우리 소망부에는 이종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정복인 전도사님, 마성탁 부장 장로님, 이만기, 이명자 부감님과 말없이 매주일마다 봉사하시는 70여명의 교사 모두가 혼신을 다하여 봉사하심이 우리 소망부 교사 분위기가 어디를 가든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되신 어른들이지만 주일마다 가운을 입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저 어른들께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변치 않을 찬양 부를 것을 예행연습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상에서 상을 많이 타 봐야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많이 있다고 하듯이 세상에서 찬양을 많이 불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충현의 성도님들! 소망부에 해당되는 어른을 모신 자녀들께서는 부모님 모시고 소망부에 오셔서 등록하시게 하

여 육신적으로 고기 사다 봉양하는 것도 효도겠지만 영적으로 효도하심이 더욱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소망부 7-2반 학생이 신 안인현 권사님께서 강원도 화천으로 전원주택을 지어 이사하시면서 우리 소망부 전원에게 푸짐한 떡잔치를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매워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할 것은 다른 권사님께서 등록하시면서 또 떡잔치를 배풀어 주시고 온 집안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나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정말로 우리 소망부에는 누구의 손길을 통하는지 일년 내내 잔치 분위기 속에서 어른들을 모시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떠나신 후에도 담임교사에게 편지를 주시고 전화를 주시고 우리 소망부가 그리워 그렇게 떠나신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락하고 궁금해 하시는 것을 생각하니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맺어진 부모 형제가 어느 편에서는 친 혈육보다 더 정이 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일찍이 주님께서 소망부에서 일하며 봉사하라는 뜻으로 시작해하신 일이 새삼스럽게 생각납니다. 저는 수년 전에 저의 집애다가 "소망의 집"이라



고 간판을 내걸고 60대 이상 노인들은 누구나 다 지나가시다가 들어와 점심 식사하며 간식을 대접해드리고, 함께 찬송도 부르고 흥이 나면 같이 손잡고 춤을 추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분들과 예배도 드리고 간증도 하였고, 자식, 며느리와 갈등으로 마음 고생하시는 노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해드리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저는 소망부에서 봉사하면서 인생공부를 많이 합니다. 5년 후, 10년 후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고 그렇게 깔끔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들도 차츰 빈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자각도 해봅니다. 소망부에 계신 부모님들 건강 때문에 자녀들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리에 놓는 일 없도록 기도해 힘쓰며 찬송하다가, 말씀듣다가 인생 마지막 장식을 잘하시어, 떳떳한 보고서 들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쓰시는 충현교회 소망부 어른들이 모두 되실 것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새가족부 야외예배를 다녀와서 사랑으로 충전된 순수한 사랑과 헌신

김영혜
(집사, 새가족부 교사)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처럼 틀림없이 우리 야유회날에는 비가 내렸어야 했다. 날씨는 무관한 강행하시겠노라는 장로님의 말씀에 나는 계속 씨푸른 날씨를 예뻐해 우산도 준비했다. 21일 아침 너무도 깨끗하고 맑은 날씨가 전날밤에 조금 내린 비로 인하여까지 씻겨주시는 주님의 선물이었다. 우리 새가족부 교사들의 수고를 위로라도 해주시는 듯이 너무도 상쾌한 날씨에 모두들 감사드렸다. 9시 정각에 출발하겠노라는 장로님의 음성엔 마음 속에 담겨져 있을텐데 교통난 때문에 늦게 모이 우리 일행은 두 대의 버스에 나눠 9시 40분에 출발하게 되었다. 기도로 시작한 출발과 함께 우리 교사들을 위해 준비된 간식이 하나하나 손에서 손으로 나뉘어지고 받으며 우리는 어린이들처럼 좋아했다. 문득 애릴적 소풍날이 생각난다. 밤잠 설치며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간신히 떠난 소풍길이 비가 내려 망치져 무척 섭섭했다. 버스 속에서 이루어지는 친교시간은 찬송과 오락과 장기가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다른 만큼 특기도 다르게

만드신 그리고 그 속에서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새삼 소중하고 정겨웠으며 다 다른 분량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은 각자 모든 교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느새 목적이던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 도착하니 신록이 우거진 숲과 푸른 하늘, 하얀 콘도가 잘 조화되어 그림같이 아름답다. 바위에 걸터앉아 하양, 빨강, 파랑, 노랑색의 예쁜 모자를 받아 쓰며 서로를 보며 웃는 모습이 유난히도 싱그럽다. 우리 일행은 먼저 나무 밑 숲에 웅크리기 모여 앉아 목사님의 인도로 찬송과 함께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마음이 모아지고 눈은 절로 하늘을 우레로 보게 되며 저 멀리 솟아 있는 산봉우리와 녹색의 푸른 나무와 푸른 하늘 아래서 찬양하는 이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되며 입을 모아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실지 생각하니 천국 찬지도 이와 비슷하리라 생각해 본다. 서로 손을 맞잡고 나를 위해 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니 저절로 감사의 기도와 진실된 기도의 향불이 하나님께 올리워지는 듯하다. 새삼 내 자신만을 더 사랑했던 것이 죄됨을 고백하며 남모르게 회개하니 마음 저 밑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침을 감는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실 주님은 손을 맞잡은 공동체 모습이 무척 자랑스러우셨을 것이며 지금 분명히 웃는 모습에서리라 생각하며 주님의 모습을 그려본다. 곧 바로 유령산을 줄기로 우리 일행은 목사님을 선두로 등산을

시작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산행길을 끝까지 동참하려 했으나 출발시간을 너무 잘 지킨(?) 탓에 선녀탕과 토끼봉을 통해 돌아오면 시간 반 더 걸릴 것이라는 거리지만 선녀탕 정도 거리에 갔을 때(약 45분 정도) 아쉽지만 점심시간에 맞추려고 하산하고 말았다. 흐르는 맑을 닦으며 바람에 맘을 식히니 무척 상쾌해진다. 우리 교사들이 무척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신다는 윤삼중 목사님의 말씀에 서로가 같은 마음일거라는 공감을 느끼며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이사리라 생각해 본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 현장을 미리 답사하시며 이리저리 세심하게 관심을 쏟으시는 소리 없는 숨은 봉사. 그걸로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그 모든 씩씩이.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교제 생활임을 새삼 실감해 본다.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와 사랑이 이토록 평안하건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점심 후에 이어지는 게임과 오락이 마냥 즐겁게만 하미소리 높여 열정으로 하는 모습이 생기 있어 보인다. 게임을 위해 열심히 무엇인가를 오는 버스 속에서도 준비하신 한영준 전도사님의 사회와 모든 교사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신 사랑의 손길들 때문에 어린이들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서로 사랑하며 섬기리라고 찬양으로 약속하며 못내 아쉬워하고 좀더 있다 가자고 조르는 분도 있었지만 돌아가는 차질이 막힐까 하여 일찍 떠났다. 다음 단합대회를 생각해 보자며 돌아오는 발걸음이 싱싱하다. 마음이 진국이니 차창 너머 보이는 댐의 물줄기에도 폭포처럼 감탄해 하는 옆자리의 권사님이 마냥 순진하고 예뻐 보이신다. 우리의 이런 순수한 마음과 사랑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켜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마음 속으로 간절히 기도해 본다. 주의 사랑으로 헌신하신 보이지 않는 손길들께 감사드리며 이 사랑으로 충전된 순수한 사랑과 헌신이 새가족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전달되어 더 많은 천국 일꾼이 충현교회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풍성한 한 날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토막소식

▶ 영아부는 오늘 교사 연구수업을 실시하고, 오는 30일에는 새친구 초청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교사들의 사명감 고취와 자질 향상을 위하여 16일과 23일에는 교사 성경교육을 실시하는데, 16일에는 '야곱의 자녀 교육', 23일에는 '로우벤의 자녀 교육'에 관해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 유치부에서는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꽃14반 이미나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미나 어린이의 아버지 이용범 집사가 회원으로 있는 청년2부에서는 치료비를 모아 지난 5월 26일 월례회시에 전달하였다.

▶ 초등2부와 3부는 교회 주변의 초등학교에서 전도를 실시하고 있다.

▶ 초등5부는 오는 16일 연구수업을 실시한다.

▶ 중등1부는 오는 16일에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킨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결석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교회에 다시 나올 것을 권면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 중등2부에서 그동안 준비해 오던 '작은음악회'를 오늘 오전 10시 30분 복지관 마르다홀에서 개최한다. 주변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하여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이 음악회에서는 독창, 중창, 합창, 기악 연주, 성극 공연 등의 프로

그램이 다양하게 선보이게 된다.

▶ 고등부는 오는 6월 23일을 '친구 초청 총동원주일'로 정하고 여러 방면으로 준비에 열심을 내고 있다. 먼저 전도대상자를 정해놓고 공동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1일 1친구 전도운동을 펴고 있다. 또한 새친구들에게 편지 띄우기, 교사들의 관리대상 학생 만나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대학부는 지난 2일 회원들에게 6월에 함께 기도할 '전체기도제목'을 나누어 기도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청년2부에서는 오늘 김천재 장로를 강사로 모시고 '30대 직장인의 고충'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 장년2부는 오는 7월 1일과 2일에 여름 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주제 아래 김길성 목사(총신대신대원조직신학 교수), 윤영탁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합동신학원에서 열린다.

▶ 장년3부는 오는 23일에 디모데후서 3장 1-17절을 범위로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 새가정부는 오는 23일 연구수업을 실시한다.

▶ 고은빈 케냐 선교사가 지난 5월 27일 입국하였다. 고 선교사는 3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MIT훈련을 받고(6월 25일부터 3주간), 어린이 선교를 위한 교육 자료를 수집하는 등 선교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된다.

교인 중 교회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 대상으로

고등부 · 청년1부 총동원 전도 운동

고등부 / 6월 23일, 청년1부 / 6월 29, 30일
다양한 행사와 치밀한 계획으로 준비

교회학교 고등부 및 청년1부가 교회내에 산재되어 있는 고등학생들과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총동원 전도운동을 펼치고 있다.

고등부는 6월 23일을 총동원의 날로 정하고 500여명에 달하는 장기결석자를 전원 출석시킬 계획을 가지고 담임교사와 학교별 모임인 둘로스 조직을 전원 가동하여 이 일에 임하고 있다.

청년1부는 교회내 20대 청년을 청년1부로 불러 모아 20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마련된 청년1부에서 함께 교육 받으며 함께 교제하며 지내기를 바라며, 또한 여름에 있을 단기선교사

역과 국내 낙도·오지 전도 사역을 위해 동참하기를 원하며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1부에서는 6월 29일(토) 오후부터 선교 바자회, 일일 찻집, 찬양 콘서트 등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6월 30일은 총동원 주일로 계획하며 교회 내의 20대 청년들과 전도대상자들을 초청하여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교인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며 협조할때만 가능한 일이다. 피차 위하여 기도하며 진정한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서양화가)는 올해의 작품들은 색깔 처리가 유난히 강렬했으며, 그것은 어떤 기교보다도 감정이 앞서는 효과를 나타내며, 이것을 통해 심성 자체에 강렬한 의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심사 총평을 정리했다.

이날 시상식장에 전시된 정신지체인들의 수상 작품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잠재능력이 있는가를 발견

했으며 정신지체인들을 위한 이러한 다양한 행사들이 좀더 많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들에 대해 좀더 많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복지관 직업훈련생

제10회 서울시 정신지체인 사생대회 시상식 참가

9명이 금상 등 상 받아

충북복지관은 5월 30일 서울시 시립 정신지체인복지관에서 열린 제10회 정신지체인 사생대회 시상식에 참가하였다. 지난 달 16일 경마장 경마공원에서 열린 제10회 정신지체인 사생대회에 복지관 직업훈련생 39명이 참가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처음 참가하는 사생대회였지만 모두들 열심히 그림을 그려 금상에 최태영(32세, 남), 은상에 윤국진(20세, 남), 동

상에 한미진(20세, 여), 입선에 서인형(19세, 여), 김홍익(25세, 남), 이성수(17세, 남), 홍민희(17세, 여), 정운섭(25세, 남), 조석윤(19세, 여) 등 모두 9명이 수상하는 기쁨을 가졌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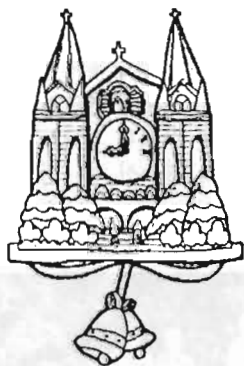
이날 시상식은 한국 아이비앳과 롯데 칠성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수상자들에게 자전거, 농구공, 유람선이용권, 시계 등 푸짐한 무상이 주어졌다.

사생대회 심사위원장인 김 정 교수

* 이제는 교침시다 *

중현타임

박 우 정
(중등3부 교사)



오랫동안 내려오는 우리의 잘못된 관습 중에 '코리언 타임' (Korean Time)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들의 시간 약속에 대한 말로서 우리들 자신은 물론,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으로 여겨져온 단어이다. 하지만 근래 들어 지구촌화, 세계화되어 감에 따라 이제 이

수치스러운 단어는 어느 정도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대단히 반가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놀랍게도 우리 교회내에서는 소위 '중현타임'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모양의 모임들을 가지게 된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대로 참으로 많은 교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모임에서부터 교회적인 모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우리의 성도로서의 생활은 그 자체가 모임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단언컨대 서로간의 약속이라 여겨지며, 그 중에서도 시간 약속은 모이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은 어떠한가? 약속 시간에 30분, 1시간 심지어는 그 이상의 시간도 늦는 것이 다반사이고, 아예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아서 함께 약속했던 성도들을 당황케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더욱기가 막힐 일은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도 진심된 사과나 변명도 없이 그저 겉연쩍게 한 번 웃어 버림으로써 사태를

마무리해 버리려 하는 태도이다. '교회 모임인데...' 라든가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고쳐야 한다. 비록 세상의 일처럼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약속은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들 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교통이 막혀서' 라든가, '다른 중요한 모임 때문에' 라든가 하는 변명 아닌 변명들은 제 시간을 지키고 나와 있는 상대방에게는 한낱 핑계로 들릴 뿐 아니라, 자칫하면 마음에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게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보다도 슬퍼하실 일이라 생각된다.